

편집 및 발행인 :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감수 : 이연경 전화번호 : 051-797-4913 E-mail : kdong@kmi.re.kr

Contents

▶ 아세안 물류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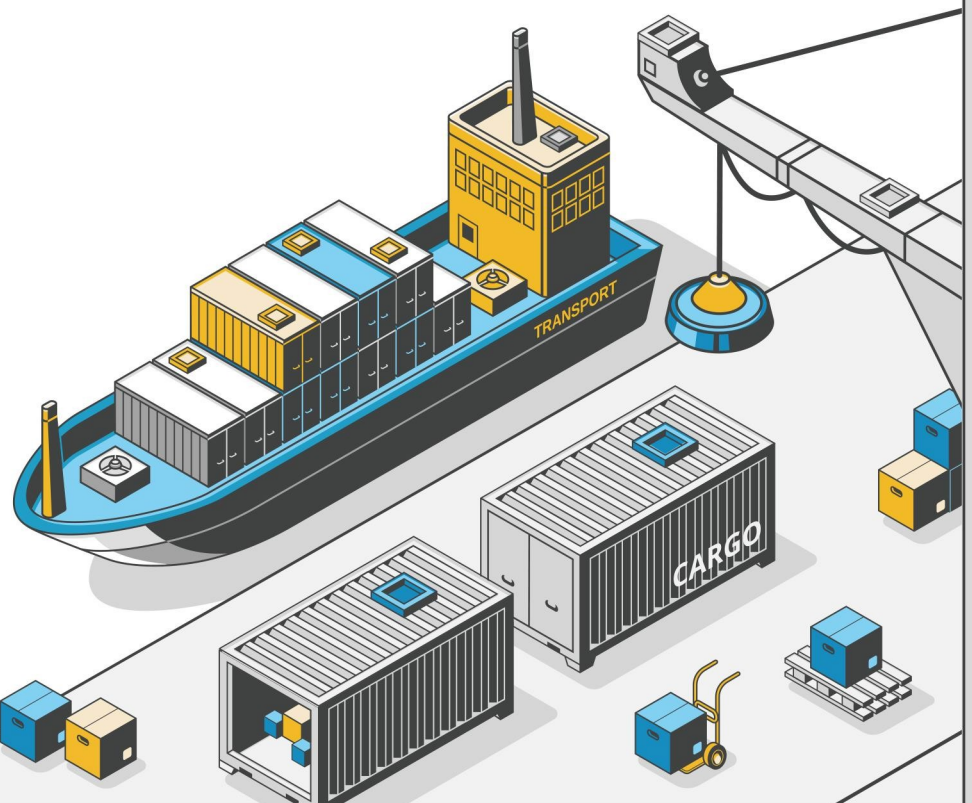
-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물류정책 2025' 발표 ...
물류허브 도약 선언

▶ 공지 사항

-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미주·중남미 물류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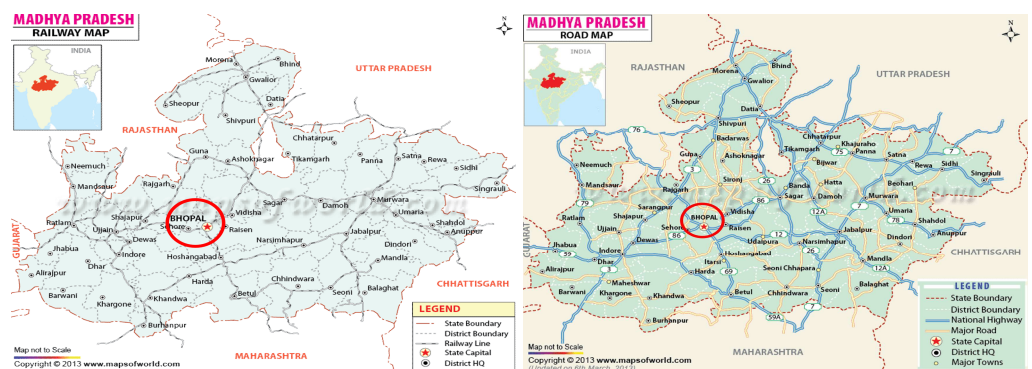
- 파나마 정부, 운하 통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
- 美, 중국 해운선사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 수출입
물류비 급등 우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물류정책 2025' 발표 ... 물류허브 도약 선언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으로 인도가 신흥 물류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진출 및 현지 물류사업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이슈 지속 및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및 물류시설의 지리적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 다양한 해외직접투자 인센티브, 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 물류 자동화 및 첨단화 추진 등으로 차세대 핵심 물류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인도 내 핵심 물류거점인 북부 뉴델리, 서부 뭄바이를 중심으로 해상운송을 비롯한 내륙 운송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인도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물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지난 달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는 '물류정책 2025'를 발표해 신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인도 중앙에 위치한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가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마디아프라데시주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물류정책을 수립함
 - 마디아프라데시 주는 비교적 낮은 투자 비용,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 및 유통 비용 절감이 가능해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음
 - 이에 마디아프라데시 정부는 '물류정책 2025'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에는 신규 화물 터미널 건설, 디지털 기술 활용 물류 시설 구축, 물류비용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속 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마디아 프라데시를 통하는 운송 네트워크 현황



자료: <https://www.mapsofworld.com> (검색일: 2025.02.19.)

- 마디아프라데시주는 지리적 이점과 ‘물류정책 2025’ 세부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할 것을 선언함
 - 마디아프라데시주는 지리적으로 인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물류 및 유통 비용 절감이 가능함
 - 또한 ‘물류정책 2025’은 친환경, 디지털,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측면의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인 물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함
 - 특히 인프라 측면의 디지털화 전환 정책을 통해 인도 주요 한계점으로 나타나던 인프라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이 기대됨
- 인도의 물류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마디아프라데시주를 비롯한 핵심 물류거점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인도 물류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 진출 및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해야 함

파나마 정부, 운하 통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

- ▶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운하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Rio Indio 저수지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1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
 - 파나마운하는 최근 들어 가뭄이 지속되어 운하 통항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물 부족에 따른 운항 중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Rio Indio 저수지 댐 건설을 추진함
 - 기후변화에 의한 엘니뇨로 가뭄 주기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지역사회 수자원과 운하 운영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
 - 프로젝트 비용은 총 16억 달러 규모로 건설 계획에는 저수지 확장을 위한 댐 건설과 파나마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Gatun 호수를 연결하는 5마일 길이의 터널 건설 등이 포함됨

Rio Indio 저수지 확장 프로젝트



자료: <https://www.enr.com/articles/58313-panama-canal-proposes-new-reservoir-to-secure-water-supply>
(검색일: 2025.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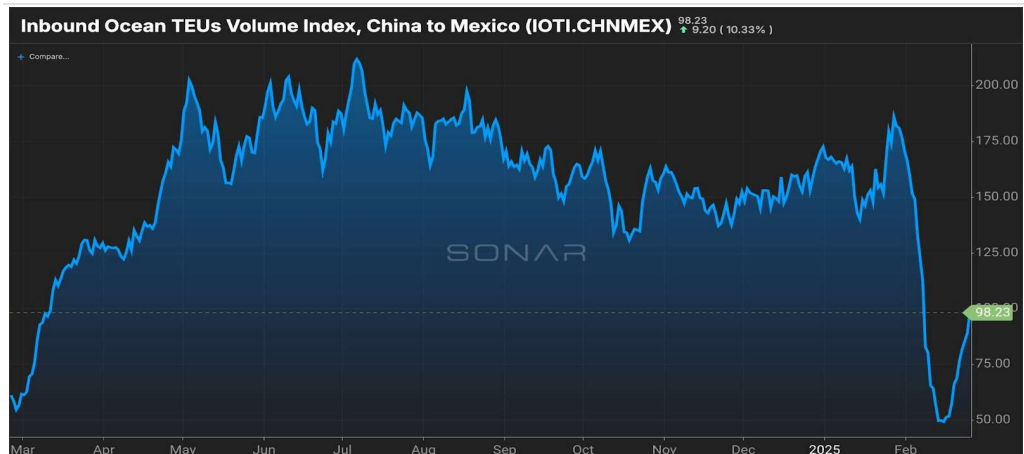
- ▶ 동 프로젝트는 인구조사,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31년 완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기반으로 파나마 운하 통항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5년 4월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 재정착 및 지원을 위한 기금 할당을 위한 보상 및 공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약 4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파나마 대법원은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24년 7월 파나마 운하청 관리 경계의 확장을 위해 운하 인근지역 140만 에이커의 관할권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을 다시 제정함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갈수기의 통항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갈수기 때 발생했던 LA·LB 등 美 서안 항만의 혼잡도 증가, 아시아-美 동부 간 운임 상승 현상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美, 중국 해운선사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 수출입 물류비 급등 우려

- USTR은 美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美·中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 해운·조선업까지 확대될 전망
 -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월 21일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 중국 선사가 美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 또는 선박 용적량 기준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 원)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 내용임
 - 또한 중국산 선박을 포함해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게도 전체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중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
 -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이어도 파나마, 마셜제도 등 타 국적 선박이 많아 중국 국적 '선박'이 아닌 '선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조선업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중국 선사는 멕시코 항만으로 우회해 내륙운송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는 계획이나,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성 우려
 - 중국 선사는 美 항만 입항 수수료 절감을 위해 멕시코 만사니요항이나 라자로항으로 우회해 美 텍사스까지 내륙운송을 이용하는 등 멕시코를 환적 허브로 활용할 것이라 예상됨
 - 이에 2월 말 중국발 멕시코 수입 컨테이너(20ft 기준) 예약이 전주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함
 - 그러나 업계에서는 멕시코 항만의 열악한 인프라 및 하역 용량 부족과 더불어 중국에서 멕시코까지 운송비용이 美 서안보다 훨씬 높기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우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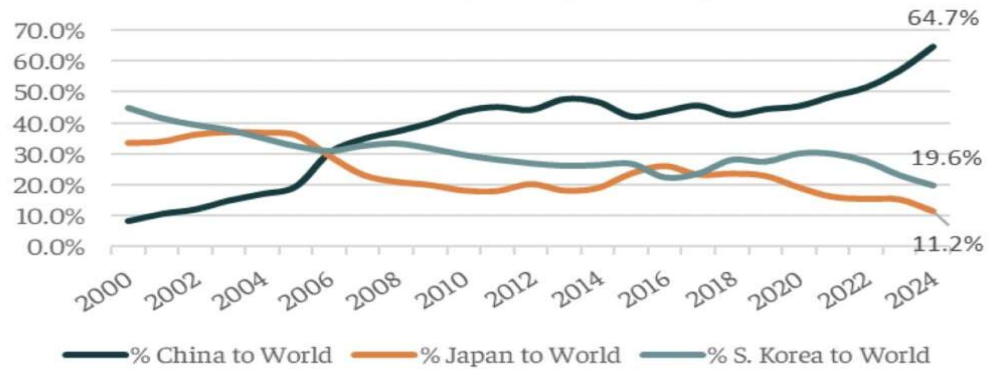
중국발 멕시코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



자료: Sonar, <https://gosonar.com/> (검색일: 2025.02.10.)

- 중국은 지난해 신조 발주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화물선의 절반 이상을 건조해 향후 美 수출입 물류비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 中 조선산업은 중국 정부가 주는 각종 특혜 보조금 덕분에 2000년 초 시장점유율 10%대에서 '24년에는 65%로 성장해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음
 - 특히 컨테이너 선의 경우 中 조선소에서 절반 이상 건조해 중국 선사뿐만 아니라 머스크 (Maersk)나 MSC 등 美 항만에 주로 기항하는 글로벌 선사에도 악영향이 예상됨
 - 컨테이너 노선의 경우 한 회차에 여러 항만을 기항하는데 아시아~美 동안 노선은 미국 내 항만을 2~3회 기항하므로 중국 선박은 노선당 최소 200~300만 달러의 수수료 부담하게 됨
 - 이에 컨테이너 선의 경우, 기존 요금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급등한 물류비의 여파는 美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이후 주요 조선업 강국의 신조 발주 점유율 추이



자료: www.intermodal.gr (검색일: 2025.02.26.)

참고 자료: <https://www.wsj.com>, <https://www.freightwaves.com>,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5.02.26)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5. 2. 17 | 월 | 09:00
3. 14 | 금 | 18:00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사업 내용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금액

최대 1억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②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 내용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인건비, 현장출장비, 컨설팅비 등) 지원

지원금액

- 물류기업 단독 수행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제출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

| 문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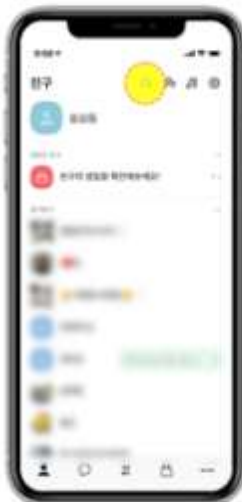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동환 센터장 T 051-797-4913 E kdong@kmi.re.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797-4648 E hjsung@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